

“남도 생태관광 거점 도약... 청년이 살고 싶은 영암 건설”



우승희 영암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따뜻한 복지·농생명산업 일변지 등 10개 분야 120개 사업 추진
귀향 청년 파격 지원·정주여건 개선...에너지·선박 등 일자리 창출도

“생태문화도시로 영암형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9일 군청 남산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성과와 향후 군정방향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영암군은 민선 8기 1년의 최대성과로 국립 마한 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꼽았다.
우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영암군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미래 영암의 단단한 밑거름을 그렸다”며 “특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로 생태문화도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민선 8기 5대 군정 방침으로 ▲청년친화 미래선도 경제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변지 ▲군민이 존중받는 주권 행정을 제시했다.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우 군수의 공약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8기 전국 지자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인 SA등급을 부여해 준비성과 실현가능성을 인정했다.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429억 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269억 원, ‘전남 서부권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으로 36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건축행정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결과로 상도 받았다.
영암군은 청년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귀향 청년을 파격 지원하고, 대신 청년이 10~20년이라는 긴 정착 기간을 영암에

서 살아가면서 천천히 그 자원을 갚아나가게 정책을 다듬고 있다. 집과 농지, 기술이 없어도 청년이 영암에서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도 만들어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취직사회책임제’를 표방했다. 일자리와 취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영암군은 이미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 ‘전남 서부권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등을 이뤘다. 이곳에서 자동차 튜닝, 친환경 에너지와 선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는’ 영암군의 여러 정책들은 ‘영암재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로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으로 나아가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안전한 숲, 평안한 섬 국립공원 생태도시 영암’이 그 비전이다. 영암군민이 생태자원 활용, 탄소중립 실천 등으로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은 관광·휴양·치유·힐링 서비스를 받는 도시로 바뀌는 내용이다.
국립공원과 도심이 만나는 영암읍 생태축을 연

결해 ‘숲의 도시’를 바꾸기로 했다. 이 생태축 안에서 영암군민이 생태교육, 치유농업, 자원순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청년과 그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도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종 인문강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유구한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문화향유권 기회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군민이 군정의 주인’인 군민주권행정 실현을 위해 ‘연제나 소통폰’을 개통해 10개월 만에 50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영암공공엔 ‘영암e랑’을 개통하고, 11개 읍·면 순회간담회와 목요대화로 소통 채널도 넓혔다.
영암군민의 생각이 전문가의 의견과 만나 정책으로 바뀌는 영암군혁신위원회는, 군정 자문과 연구조사 등 활동을 시작해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목은 속제를 하나씩 살피고 해법을 찾아 ‘영암식 혁신’ 토대를 잘 닦았다”며 “영암군민께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들, 좋은 사업들을 공약에 담아서 잘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 남녀 공동육아 문화 장려

공공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영암군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영암군은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왕인문화유적지 등 다중집합장소 6개소에 10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6개는 남자화장실에 설치했다.
소위 ‘육아 대디’로 불리는 자녀 양육, 가사 전담 남성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남녀 공동육아 문화 확산,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을 위한 조처라고 영암군은 밝혔다.
영암군은 앞서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와 아빠의 편의를 위해 설치 대상지를 사전 물색했으며, 가족 단위로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여성친화시설 설치가 주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영암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고 3000만원

진도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가능하다.
신청자가 직접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으로 방문·접수해야 하고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 지부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준비

문예회관에서 학술대회 개최...학술가치 홍보·전략방안 논의

해남군이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유산과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남 고려청자요지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의 ‘해남 고려청자요지의 현황과 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남 진산리 등 초기청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현황과 특징, 세계유산 등재 추진전략 등 6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군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인 강진군, 부안군과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려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 지역은 총 450여기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고려청자요지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이다.
군은 국내 최대 규모 초기청자 생산지로서 우리나라 자기 발생의 단서와 초기 청자의 기형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사적 제310호로 지정된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100여 기와 전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 80여기 등 총 180여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국내외 추진동



해남 진산리 초기 청자 가마터.

향과 해남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해남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유산 기조연구 고려청자 자료집성 용역 중간보고회와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학술대회가 3개군 공동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제기된 등재 전략과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금 흥도는 원추리꽃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7~16일 ‘섬 원추리 축제’...사진전 등 문화행사 다채

신안군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흥도에서 ‘섬 원추리 축제’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흥도원추리와 야생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흥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전 등이 진행된다.

‘흥도원추리’는 식물도감에도 등재된 육지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아름답다. 질감이 곱고 관상 가치가 뛰어나 야생화 식물로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흥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보릿고개 시절 흥도 주민들은 원추리 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뎌 냈으며,

원추리꽃이 지고 나면 잎을 잘라 새끼를 꼬아 띠 지붕을 만들고, 배 밧줄, 광주리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살아왔다.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섬 흥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5년 지정)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년)으로 지정됐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 거리임에도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재해 없는 건설 현장 조성 완도군, 사고 예방 교육

완도군이 최근 건설업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했다.
지난 29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교육은 완도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마련했다.
교육에는 건설업 종사자와 현장 소장,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강의에는 강동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이 나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법을 소개했다. 교육 뒤에는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 책자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안전보건 자료와 안전보건공단 재정 지원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완도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업 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13만348명 중 사망자는 2223명에 달했다. 특히 건설업과 60세 이상 남성 근로자 사망자가 두드러졌다. 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떨어짐(36.8%), 부딪힘(1.5%), 끼임(10.3%) 등이 많았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kwangju.co.kr



무안주간보호센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여러꽃타래복지센터도
무안군이 무안읍에 있는 ‘무안주간보호센터’와 ‘여러꽃타래복지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 무안군은 최근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선정된 2개 기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란 구성원 전체가 치매 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극복 활동과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단체를 말한다.
무안군은 이달까지 학교, 복지센터 등 11개소의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단체는 무안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복지센터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함께 치매 인식개선 활동도 벌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 주체가 치매 친화적 사회조성에 참여하도록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